

신년특집

올해는 문학의 해

올곧은 사유로 '정신 황폐화' 계도

효율위주 문화에 떠밀려

서구에서 급세기 초부터 시작된 현상이 반세기 가 훨씬 지난 70년대 중반에 한국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의 굴레를 벗어나면서 동족상잔의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겪은 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종전까지 누려왔던 문화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정신을 거처면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았던 문화의 중심축이었던 문학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현상이 그것이다. 60년대 이후의 개발독재는 '조국 근대화'라는 말로 압축되는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였다. 그것만이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되었다. 3차까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물질화의 가치관이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신적인 상부구조의 가치관보다는 경제생활에 근거한 하부구조인 물질만능의 가치척도가 한국인 심성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소비가 중심이 되는 대중화 통속화의 문화적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전파매체 혹은 영상매체 그리고 레저 중심의 문화적 다변화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진실로 인간과 삶, 현실에 고뇌하는 문학은 이런 문화의 다변화 현상속에서 문화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88서울올림픽은 이러한 문화의 대중화 통속화 혹은 일반화 현상과 문학이 문화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화가 대중화 되고 문화적 현상이 다변화

'미래사회와 불교문학'

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면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레저 중심의 소비문화가 문화의 중심축이 될 때 문화와 같은 고급문화를 대중 문화의 속삭성이 짓누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70년대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문학의 상업주의는 이같은 현상과 우려 속에서 나온 것임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19세기 말 산업화 사회로 이행하던 때의 영국을 매수 아놀드가 '교양과 무질서'로 질타했던 사실에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학이 문화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현상은 때로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 시키기도 한다. 모든 대중적이 고 속박한 통속적 문화현상은 대중

고 있는 것에는 맹목한다. 과학이 인간에 봉사하기보다는 인간이 과학에 맹목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첨단과학, 정보통신, 영상매체로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다가올 시대의 문화적 현상을 정보화 시대라고 부른다. 정보는 무엇으로 전달되는가, 그것이 언어로서 전달된다고 한다면 이 경우 언어는 다만 전달 기능을 가진 기호에 불과하다. 언어가 전달기능만을 가졌다면 언어를 절차타미하는 문학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언어가 전달의 기능 외에도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언어가 이념 그 자체라는 점에

평론가 진단



김 선 학

<동국대학교수·국문학>

이다. 언어에 대한 이같은 논의가 언어의 전달기능과 함께 검증되고 전착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야만 정보화 시대에 있어 문학은 문화의

호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문학은 대중성과 통속주의의 속박성에 황폐화 되는 영혼의 참모습을 지켜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의 이념으로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문학은 다만 소재를 불교적인 것에서 구했다거나,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인간구원을 주제로 한 것이라는 소승적인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질주의에 대응하는 정신주의, 물질주의의 물질화를 극복하는 인간영혼의 쟁투와 그 사유의 흔적을 언어에 인각시키는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은 언어로서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일차적인 뜻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로서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파악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문학이 문화의 주변부로 밀려난 마당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이며, 불교문학이 소승적 울타리를 벗어나 정신주의의 극한을 언어로써 어떻게 자리잡게 해야 할 것인가를 뼈저리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일과 삶과 현실에 대한 올곧은 사유의 자리로 인간이 돌아올 수 있게 언어 그것을 불교의 구도주의와 용맹정진의 이념으로 표상화해야 할 것이라 생각의 연장에서 또 한번 불교문학의 존재를 떠올리게 된다.

산업화, 물질화 시대의 세기말 문화 주변부에서 기가 죽은 한국문학의 모습, 그것을 소생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불교문학의 가능성에서 찾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싶다.

몬테스트, 국제 시낭송대회, 문학캠프 등도 열기로 했다. 또 TV를 통해 한국 문학전집을 방영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라는 공식포어와 흰색 바탕에 청색으로 디자인한 공식 휘장을 선보이고 있는 조직위는 문학의 해 홍보 및 기념품 제작사업을 통해 포스터, 스티커, 현수막 등을 점차적으로 제작, 배포키로 했다. 아울러 조직위는 박건호 작사, 문지환 작곡의 '문학을 꽃 피우자'라는 제목으로 모교 송을 확정, 문지환·정미영의 음성으로 홍보한다.

(필)

1월의 문화인물

서포 김만중



96년 1월은 문화체육부가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김만중의 달이다.

김만중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호는 서포(西浦), 시호는 문효(文孝)다. 본디 총명한 재능을 타고 나기도 했지만 가문의 몰락한 정통 등으로 인해 그의 학문도 상당한 경지를 성취하였다. 그가 종종 주희(朱熹)의 논리를 비판했다든지, 불교적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한 점 등 위와 같은 배경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역불의 시대에 불교를 주된 사상으로 창작 활동에 몰입하기도 했으며 창작 활동에 몰입하기도 했다. 그 좋은 예로 공백한 살림 중에 도 지식들에게 필요한 서책을 구입입찰에 값의 고하를 묻지 않았고, 또 이곳에 사는 흥문관사리를 통

유배생활로 일생을 마치게 되지만, 생애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상당한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특유의 사정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본디 총명한 재능을 타고 나기도 했지만 가문의 몰락한 정통 등으로 인해 그의 학문도 상당한 경지를 성취하였다. 그가 종종 주희(朱熹)의 논리를 비판했다든지, 불교적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한 점 등 위와 같은 배경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역불의 시대에 불교를 주된 사상으로 창작 활동에 몰입하기도 했으며 창작 활동에 몰입하기도 했다. 그 좋은 예로 공백한 살림 중에 도 지식들에게 필요한 서책을 구입입찰에 값의 고하를 묻지 않았고, 또 이곳에 사는 흥문관사리를 통

장춘몽이라는데 문 바와 같이 김만중의 <구운몽> 역시 대승불교의 중심인 금강경의 '공(空)'에 있다. 공이 인생관사를 역설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구운몽>은 <금강경>과 어머니 윤씨의 회생적인 가르침은 훗날 그의 생애와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훈도를 받고 14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하고 이어 16세에 진사에 일등으로 합격, 1674년까지 헌남·부수찬·교리 등을 지냈다. 그 뒤 시대의 우여곡절을 겪다가 1692년 5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사상과 문학은 이전의 어느 문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말년에 와서 불문한

도광선 기자

소비 대중문화 거셀수록 '성찰문학' 역할 높아져

구도주의·용맹정진 이념 표상화 작업 나설때

책임으로 하여 영향력을 보다 폭넓게 행사하게 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올곧은 존재와 현실에 대한 성찰과 사유로부터 비껴서게 만든다. 첨단과학, 정보통신, 영상매체에서 비롯하는 삶의 질 개선에 언제나 봉사하려는 의도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그 질의 향상은 대중적이고 일반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에 치우칠 뿐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탐구나 삶과 현실 속에서 인간 존재가 물질로부터 소외되어 영혼의 황폐화를 초래하

대한 확인이다. 언어를 전달기호로만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효율성 위주의 물질적 발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바흐틴은 언어는 이

가치관 정립 밑거름 돼야

데올로기'라고 단언한다. 이러한 논의는 전달기능 이상의 무엇을 예상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언표들

주변부에 자리하지만 제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정신주의는 물질주의에 대응되는 용어이면서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말이다. 동시에 세기말에 접어들어 오늘의 물질만능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정신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머금고 있기도 하다. 문학이 문화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지만 문학은 망가지고 황폐화 되어가는 영혼을 정신주의의 추구로서 보

문학의 해

근대문학관·번역원 설립등 22개사업 전개

'96 문학의 해' 사업계획안이 발표됐다.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서기원)는 문학기반 조성, 학술 및 자료조사, 문학창작 활성화, 홍보 및 기념품 제작 등 4개부문 22개 사업을 전개한다.

문학기반 조성사업은 창작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할 근대문학관 및 문학의 해를 기념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문학적 정서를 진작기 위한 근대문학 백년탐견

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문학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번역역원을 설치키로 했으며, 정보통신을 이용한 문학통신망의 설치, 한국 근대문학 100년 CD-ROM 제작, 한국 문학작품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한 다.

학술 및 자료조사 사업으로는 각종 국제적 규모의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지도 및 한국문학인명록을 발간키로 했다.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부문에서



는 국내에서 한국어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한민족 문학인대회 개최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조직위는 특히 북한의 문인도 세미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인 종합예술제, 작곡·원로문인 육필 전시회, 동인지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 땅은 곳마다 부처님 땅 토끼 하소서

동국대학교 석림동 문학

명예회장: 윌 탄
회장: 혜 총
상임부회장: 원 성
부회장: 정산, 일우, 지홍, 삼지
감사: 정덕, 일면

사무총장: 지 원
의무부장: 이 정
재무부장: 종 립
기획실장: 동 성
총무부장: 도 광
조직부장: 도 진

특별분과위원회

- 장학포상분과위원회위원장: 윌 탄
• 정책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보 광
• 언론통일인권분과위원회위원장: 진 관
• 포교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성 열
• 복지문제분과위원회위원장: 시 현
• 법사분과위원회위원장: 원 명
• 동국학원총총위위원장: 원 성
부위원장: 법 정
• 석림불교아카데미 원장: 혜 총
사무국장: 선 중 / 사무간사: 유 혜 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38 내자원빌딩 6층
전화: 02-723-5264, 722-2214 / 팩스: 02-735-6205

대구불교산악회

회장: 김 장 근

신입회원모집

대구 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84-35 동양APT A동 410호

(053) 954-7233
(053) 743-2554

과계사

주지: 배 도 원

대구 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053) 984-4550

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주지: 조 우 학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1동
605-4

(053) 474-8228

불교장외사

지장불교상조개발

가족처럼 모십니다.
불교인의 장례는
불교장외사에서

24시간 전화상담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 2동
1791-6

(053) 654-0055

한국불교연구원

대구 구도회

회장: 권 오 주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 4동
3052-7

(053) 654-8533